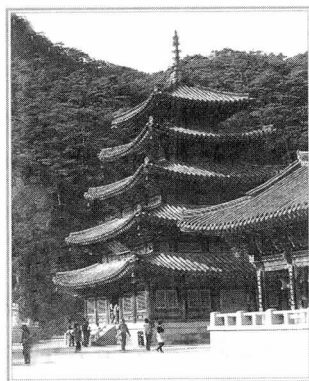


조각 · 건축의 박물관 법주사



팔 상 전

법주사 경내 중앙부에 자리한 팔상전은 한국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목탑식 건축물 가운데 으뜸으로 국보 제55호이며 이 5층탑은 탑이면서 동시에 전(殿)이다.



정 재 훈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전 문화재관리국장 〉

법

주사(法住寺)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깊은 계곡에 있는데 조각과 건축의 박물관이다. 우리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목탑건축인 팔상전(捌相殿: 국보 제55호)과 조각의 천재가 기발한 착상으로 조성한 쌍자자석등(국보 제5호) 및 한 송이 연꽃이 만발하는 모습으로 조각된 석조(石槽)의 걸작인 석련지(石蓮池: 국보 제64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물 제15호인 사천왕석등, 보물 제216호인 마에여래상, 보물 제848호인 시냇천문도 병풍, 보물 제915호인 대웅전, 보물 제916호인 원통전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인 세존사리탑(16호), 회견보살상(38호), 석조(70호), 벽암

대사비(71호), 사천왕문(46호), 자정국존비(79호), 괘불(119호), 당간지주, 석옹 등이 있다. 그리고 1989년에 완성을 본 높이 33m(160톤)의 거대한 청동 미륵대불이 서 있다.

또 범주사에 딸린 속리산 속의 암자에도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복천암(福泉庵)에는 수암화상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과 학조등국화상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호) 등이 있고 수정암(水晶庵), 중사자암(中獅子庵), 여적암(汝寂庵), 탈골암(脫骨庵), 상환암(上歡庵), 상고암(上庫庵) 등 유서 깊은 많은 암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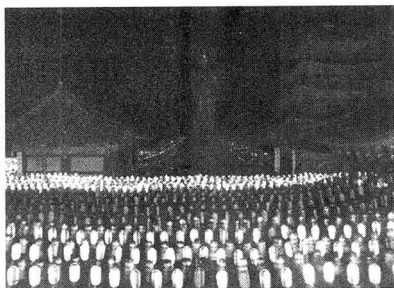
또 1968년 팔상전 해체보수공사 중에 중심 초석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 속에 한글을 혼용한 축원문이 있었다. 이를 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불타버린 팔상전을 1605년에 승군대장인 사명대사(泗溟大師)가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리장치는 우리 나라 목탑 속에서 나

은 유일한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범주사가 우리나라 8대 명산 중의 하나인 속리산의 명승과 어울려 더욱 경이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주사 창건은 553년(진흥왕 14) 의신(義信)이란 승려가 서역으로부터 불경을 나귀에 싣고 와서 이 절을 세웠다는 설화가 『동국여지승람』 보은현조에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대찰이 된 것은 전북 금산사(金山寺)를 창건한 진표(眞表)의 제자인 영심(永深) 등에 의해 8세기에 이룩되었다. 진표는 제자에게 속리산으로 들어가 길상초(吉祥草)가 난 곳에 절을 지으라 하여 그곳을 찾아 절을 짓고 길상사라 하였다. 이 길상사는 미륵신앙의 절이었다. 고려 때인 1101년 숙종이 그의 아우 대각국사를 위해 범주사에서 인왕경회(仁王經會)를 열었는데 당시 3만 명의 승려가 모였다 한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조가 상환암에 와서 기도한 일이 있고, 세조가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복천암



▶ 장들불사

에서 3일 동안 법회를 열기도 했다. 세조는 법주사에 올 때 속리산 입구의 정이품송(正二品松) 밑에 쉬면서 소나무에게 판서(장관)의 품계인 이품직을 내렸던 것이다. 법주사는 신라승려 영심의 중창 이후 역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번창하여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전 사찰이 불타버렸고, 1624년 벽암스님에 의해 중창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기발한 착상, 생동감 넘치는 석조 예술품

법주사의 팔상전은 1605년에 중

창된 5층 목탑인데, 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화롭게 체감되어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5층의 지붕은 사모지붕으로 그 위에 탑의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이 목탑은 방형의 기단 위에서 있는데 1층은 주심포집이고 2층 이상은 다포집 양식이다. 길게 빠진 추녀 끝에는 풍탁이 달려서 바람이 불면 방울소리가 밝게 난다.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8폭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가 있고 석가모니불과 나한상이 있다.

팔상전은 한국에서 유일한 목탑으로 건축사 연구에서 지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쌍사자석등은 높이가 3.3m에 이르는데, 두 마리 사자가 뒷발을 하대석에 버티어 가슴을 대고 마주 서서 앞발로 화사석(火舍石)이 얹혀 있는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이 두 마리 사자는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갈기가 있고 다리외 몸에는 근육까지 표현되어 있다.

화사석은 8각으로 네 곳에 화창

(火窓)이 있다. 석등의 지붕돌도 8각이며 처마선은 거의 수평인데 추녀끝만 약간 들려 있다. 지붕돌 정상에는 보주(寶珠)가 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8세기 석등 중 기발한 착상과 숙련된 조각 솜씨가 돋보이는 최고의 걸작이다.

석련지는 높이 195cm의 활짝 핀 연꽃 모양의 석조이다. 장대석으로 짜여진 방형 지대석 위에 8각의 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잘룩한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연꽃형 석련지가 얹혀 있다. 석련지 표면에는 하단부에 여덟 잎의 연꽃이 새



▶ 석등

겨 있고 그 위에 또 겹쳐서 커다란 여덟 잎의 연꽃이 위로 향해 피어 있는 형상으로 새겼다. 연꽃 잎 속에 보상화문을 넣어서 화려하고 장중해 보인다.

석련지 상단에는 작은 기둥을 새기고 난간을 돌렸으며, 그 난간 벽에는 하늘을 나는 천인상(天人像)과 보상화문을 화려하게 돌려 새겼다. 이 석련지는 8세기 작품으로 우리 나라 석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중하며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걸작이다.

석련지 옆에는 돌 향로를 머리에 이고 천 년도 넘게 공을 들고 서 있는 보살상이 있다. 희견보살(喜見菩薩)이라고 한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오래도록 벌을 서고 있는 것일까.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참아온 인고(忍苦)가 엿보인다.

대웅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다포계의 2층 팔각지붕인데 170평에 이르는 장중한 불전으로 1624년에 중창되었다.

불전 안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

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화신불(化身佛)인 석가모니불과 보신불(報身佛)인 노사나불이 안치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이 주불인 경우는 불전 이름이 비로전이거나 대적광전, 대광명전 등이 되어야 하는데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대웅전'이라는 불전 이름을 하고 있어 어느 때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경내 절벽에 새겨 있는 마애여래상은 보물 제216호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마애불이다. 높이 5m의 큰 불상인데 연화좌 위에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앉아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잘룩한 허리, 삼각형적인 상체, 수평적인 무릎과 직선적인 다리, 날카로운 연꽃잎, 미소를 약간 머금은 얼굴, 그리고 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다. 이 석불은 미륵불로 볼 수 있다. 이 마애불 앞에는 지장보살상과 설화도(說話圖)가 새겨 있다.

사천왕 석등은 보물 제15호인데, 통일신라 팔각석등 중 우수한 것이다. 8각의 하대석 위에 8각의 기둥들을 세우고 8각의 화사석 4면

에 창을 내고 4면의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8각 지붕돌 위에 보주가 얹혀 있다. 화사석과 지붕돌과 기둥돌의 비례가 흰칠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천왕상은 사실적인 생동감이 있다.

원통보전(園通寶殿)은 보물 제 916호로 정면 3칸의 정방형 주심 킷집이다. 1624년 중창되었는데 사모지붕의 정자형 건물로 집안에 높이 2.8m의 목조 관세음보살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법주사 산호전(珊瑚殿)에는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과 구리로 만든 높은 깃대(幢)가 있는데 그 깃대는 통화(通和) 24년(1006)에 세웠다고 새겨 있다”고 하였다. 이 금신장육상은 1872년 대원군이 경복궁 복원을 할 때 당백전을 주조하기 위해 압수해 갔다. 산호전 자리에는 현재 청동 미륵불이 서 있다.

문장대의 기미슬만한 천연 구렁이

법주사에는 흥미있는 제사가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대

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가 속리산 마루에 있는데 그 신(神)이 매년 10월 인일(寅日) 법주사에 내려오면 산중 사람들이 풍류를 베풀고 신을 맞이해 제사를 지냈으며 신은 45일간 머물다 돌아간다”고 했다. 일본인 학자(村山智順)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제사는 나무로 만든 남근으로 성희(性戲)를 하여 신을 위안시켜 법주사의 재앙을 막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유적 외에 속리산의 자연 또한 절승이다. 속리산(1,058m)은 한국 8대 명산 중 하나이다. 산봉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자라봉, 비로봉, 문수봉, 관음봉 등 기암고봉이 북서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뻗어 남서쪽의 수정봉과 법주사를 아늑히 감싸고 있다.

천왕봉 골짜기에서는 맑고 찬 지하수가 대량으로 솟아나는데 세 줄기로 흘러나간다. 동의 한 줄기는 낙동강 상류가 되고 남의 한 줄기는 금강의 상류가 되며, 북의 한 줄기는 한강의 상류가 되어 삼파수(三派水)라고도 한다.

산봉우리에는 높고 넓은 암벽 위에 대(臺)가 형성되어 절경을 이루는데 8대가 있다. 8대는 문장대, 입석대, 경업대, 배석대, 학소대, 은선대, 봉황대, 산호대이다. 또 산봉우리가 겹겹이 솟아 유연한 계곡이 도처에 형성되어 8석문이 있다. 이 8석문은 내석문, 외석문, 상환석문, 상고내석문, 상고외석문, 비로석문, 금강석문, 추래석문이다. 그리고 계곡에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폭포가 되고 소(沼)가 되면서 흐른다.

『동국여지승람』 속리산조에 보면 “9요(遙) 속에 물 한 줄기가 돌고 돌아 굽이쳐 꺾이는데, 한 굽이마다 다리가 있어 그 다리가 모두 여덟이기 때문에 8교(八橋)라 했다” 한다. 속리산은 중사(中祀)에 오른 신령스러운 산으로 산과 내는 무릉도원과 같은 절승이어서 봉래산과 같은 선경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장대 기록도 재미있다. “산마루에 문장대가 있는데 층이 쌓인 것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



▶ 상환암 석탑

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 수 없다. 그 넓이는 사람 3천 명이 앉을 만하고 문장대 위에 구덩이가 가마솥만한 것이 있어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 와도 더 많아지지 않는다” 하였다.

이 기록과 같은 문장대는 속리산 등산로의 절정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비경의 영산인 속리산 범주사에는 한국 문화사에 감동어린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문명의 공해로부터 벗어나 맑은 정서와 건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명소이다. ▲